

정답 및 채점기준표 [B형]

시험종류 : 제24회 일반한국어능력시험

영역 : 고급 표현(쓰기)

문항번호	정답 (객관식)	배점	문항번호	정답 (객관식)	배점	
31	②	4	36	①	4	
32	②	4	37	①	4	
33	③	4	38	①	4	
34	③	4	39	③	4	
35	④	4	40	④	4	
답지 빈도	답지번호	①	②	③	④	계
	정답수	3	2	3	2	10

문항번호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 (주관식)	배점
41	<p>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기보다(고집하지 말고)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p> <p>1) 연결 표현이 어색한 경우 -2점 2) 의미 전달에 지장이 큰 철자, 맞춤법 오류, 1-2점 감점 3) 제시된 조건(순서대로, 모두, 40-60자, 한 문장)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2점 4) 제시된 표현의 의미적 연결이 어색한 경우 -2점 5) 제시된 주제를 벗어난 경우 -2점</p>	10
42	<p>엄마를 아빠보다 가깝게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엄마를 아빠보다 가깝게 느끼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p> <p>1) 연결 표현이 어색한 경우 -2점 2) 의미적 연결이 어색한 경우 -2점 3) 의미 전달에 지장이 큰 철자, 맞춤법 오류 1-2점 감점</p>	10
43	<p>얼마나 가깝고 먼지에 따라 얼마나 가깝고 머냐에 따라</p> <p>1) 연결 표현이 어색한 경우 -2점 2) 의미적 연결이 어색한 경우 -2점 3) 의미 전달에 지장이 큰 철자, 맞춤법 오류 1-2점 감점</p>	10
44	<p>작문형 문항의 채점 기준에 따름.</p> <p>어린 시절부터 나의 꿈은 축구 선수였다. 좋아하는 만큼 축구에 소질이 있었기에 미래의 국가 대표 선수를 꿈꾸며 성장해 왔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p>	30

때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 건널목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내 꿈은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그때 사고로 나는 발목을 심하게 다쳤고, 낫더라도 더 이상은 운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을 듣고 절망했다.

그렇게 한 순간에 꿈을 잃었기에 그 어떤 것에도 흥미가 없었다. 텔레비전에서 중계하는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사고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 자리에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세상을 원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는 내게 축구와 관련된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해 주는 그런 기자가 되면 어떻겠냐고 하셨다. 그 순간 나는 어쩌면 내가 그토록 꿈꾸던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고 그 동안 꿈을 잃었다고 방황만 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때부터 그 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 내가 스스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꿈으로 가는 길이 많다는 걸 깨달았고 매순간을 내 꿈을 위해 투자했다. 그렇게 나는 그토록 원하던 축구 전문 기자가 되었고 세계를 누비며 즐거운 축구 소식을 전하고 있다.

고난과 시련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에서 많은 것을 앗아갈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닥쳐올 알 수 없는 시련들도 나는 즐겁게 맞서 나갈 것이다.